

# 상하이 도시 공간과 기억의 재구성 그리고 이미지의 정치\*

— 드라마 〈蝸居〉〈僞裝者〉〈歡樂頌〉을 중심으로

고윤실\*\*

## <目 次>

1. 들어가며
2. 상하이 경관변화의 물질적 조건 변화와 도시감각의 형성
  - 1) 상하이 도시 발전 계획과 물질적 조건 변화
  - 2) 〈蝸居〉: 현실 공간 상하이의 일상적 감각과 '집'의 의미
3. 상하이 경관의 비물질적 조건과 역사적 기억의 생산방식
  - 1) 비물질적 조건과 상하이 노스텔지어
  - 2) 〈僞裝者〉: 항일 역사의 중심지로 소환된 부르주아의 도시
4. 통치성과 도시성의 형성
  - 1) 보여주기와 감추기: 포스트 계급사회의 중산계층과 '신빈민(新窮人)'
  - 2) 〈歡樂頌〉: 도시의 환락과 욕망의 통치성
5. 나가며

## 1. 들어가며

도시는 역사가 누적된 공간이며 삶의 형식, 실천,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삶의 연관들이 구성과 재구성을 거치는 고도의 직접점이자 시공간의 매트릭스이다.<sup>1)</sup>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6520)

이 논문은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목포대학교 중국언어와문화학과 강사

1) 슈테판 쿤첼 편, 이기홍 역, 『공간 그리고 역사』, 『토폴로지 -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연구』, 에코리브르, 2010년, 49-59쪽.

도시를 읽는다는 것은 과거 속에 침잠한 삶의 형식과 역사를 현재의 권력과 지배 이데올로기, 생산과 재생산, 계급과 문화, 그리고 인식의 형태들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해내는 “구체적 총체성”<sup>2)</sup>을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재조명된 도시 공간을 통해 레짐과 문화코드의 변화에 따라 도시 역사 기술(記述)이 새롭게 조직되는 방식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공간적 전회’라는 문화학의 입장으로, “지도 제작”에 비유될 수 있다.<sup>3)</sup>

지도는 점·선·면과 기호로 구성된 이미지이며, 이미지를 넘어서 장소를 기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장소기술의 방식은 단순히 장소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넘어 시간의 누적된 흐름을 공간적 차원에서 시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상상력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등의 동시대적 가치가 새겨진다. 지도가 기호로 구성된 공간 이미지라 한다면, 드라마는 재현 체제를 통해 구성된 문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드라마의 이미지 역시 여러 현실의 표상적 자료와 공간을 미화, 강조, 배제, 변형, 왜곡 등의 기술적 구성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인지적 공간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기억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드라마의 이미지는 이러한 점에서 현지인을 포함하여 외부의 타자들에게도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지형과 상상을 제공한다.

중국 드라마의 도시극(都市劇) 가운데 상하이와 베이징은 이야기의 주요 배경

2) 공간 읽기에서 구체적 총체성을 해독하려는 방식은 “공간 관련 내러티브, 병렬성과 동시성의 내러티브에 대해 합리적 전개 방식과 기술 방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예시적인 것들에서 구체적 전체로 재구성하는 귀납적 기술방식이다.” 슈테판 쿨첵 편, 이기홍 역, 「공간 그리고 역사」, 『토폴로지 -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연구』, 에코리브르, 2010년, 62쪽, 10-13쪽 요약발췌.

3) 1990년대 이후 문화학에서 중요한 방향전환의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로 “공간적 전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공간성은 문화의 개입 없이 구성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시대와 역사가 인간사회의 내부구조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를테면, 어떤 지도를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비물질적 조건을 포함하여 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들을 분석하려는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공간에 대한 문화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슈테판 쿨첵 엮음, 이기홍 옮김, 『토폴로지』, 서울: 에코리브르, 2016년; 위르크 되링, 트리스탄 틸만, 『공간적 전회-문화학과 사회과학의 공간 패러다임』, 서울: 심산, 2015년; 마이크랭 · 나이젤 스리프트 엮음, 최병두 옮김, 『공간적 사유』, 서울: 에코리브르, 2013년.

으로 자주 등장한다. 특히 상하이는 수도 베이징과 더불어 중국의 대도시를 표상하는 전형성을 띤 공간이며, 시장 체제와 발전에 대한 국가와 도시 정책의 성과를 상징하는 현대적 공간이다. 상하이가 가지는 역사적 경험과 경관은 현대 중국 도시의 일상생활과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며, 이를 배경으로 드라마는 현실-이데올로기-도시 상상의 층위에 걸쳐 정치와 자본에 의한 스펙타클을 만들어낸다. 본문에서는 장르별로 각기 다른 층위에서의 상하이를 그려내는 세 편의 드라마 〈달팽이집(蝸居)〉, 〈위장자(僞裝者)〉, 〈환락송(歡樂頌)〉을 중심으로 드라마의 이미지 공간이 일상생활 현실담론, 역사 정치 이데올로기, 도시의 환락과 꿈이라는 신화를 통해 어떤 문화적 지형을 형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미디어에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상하이를 어떻게 그려내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드라마가 상하이를 통해 당대 중국의 “도시성”을 만들어내는 여러 담론적 실천들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동반한 물질적·비물질적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먼저 세 편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상하이 경관을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 즉 경제 구조와 도시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며, 그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적 담론과 같은 비물질적 조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담론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도시 이미지가 어떻게 현실 경험과 결부되며 역사적 기억을 재구성하고 도시성을 구성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드라마 이미지의 정치적 작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상하이 경관변화의 물질적 조건 변화와 도시감각의 형성

### 1) 상하이 도시발전계획과 물질적 조건 변화

중국 도시 개발과 공간 재편을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토지는 개혁개방과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전민소유(社會主義全民所有)’에서 ‘상품으로서 전환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주택개혁과 ‘상품주택(商品房)’시장이 활성화

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세제(分稅制)'<sup>4)</sup> 시행에 따른 토지 이용 권리가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도시개발업자 사이에 "성장 지향적 연합(pro-growth coalition)"<sup>5)</sup>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금융 자본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부동산 시장 버블이 형성되었다.

도시 재개발 붐이 일어나자 1950-60년대 사회주의 시기 주요 거주공간인 '노동자 신촌'과 같은 생활공간이 급속히 쇠락하며 공간 재편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 단위(單位)는 국유토지의 주 사용자로서 토지를 빠른 속도로 민영화시켰으며, 토지 임대를 통하여 지방 정부와 함께 도시 지역개발의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 구조는 상품주택 공급을 위주로 거주 공간이 대폭 확대 되었으며, 곳곳에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다.<sup>6)</sup> 사회주의 공공 공간인 광장과 집회장은 대폭 축소되었고 주거 건물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식당, 학교, 은행, 피트니스 클럽, 각종 문화 시설 등이 생겨났다. 여기에 교통 간선과 지하철역이 배치되었고 생산과 거주의 결합이 긴밀했던 경공업 중심의 도시공간은 거주에 소비 공간이 긴밀하게 중첩된 서비스업 중심 도시공간으로 재편되었다.<sup>7)</sup>

시장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담론에 의해 상하이의 물질적 공간의 재현은 199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대 상하이 경제구

4) 분세제 개혁은 여러 단계의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고, 중앙과 지방이 각각 보유하거나 공유하는 세금의 범위를 재설정하였다. 그 중 눈에 띄는 점은 부동산 관련 세금 대부분이 지방정부에 귀속되었다는 점이다.

원테권 지음,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돌베게, 2015년.  
원테권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덟 번의 위기 -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1949-2009』, 돌베게, 2016년.

5) 한지은, 『도시와 장소 기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년, 126쪽. 재인용.

6) 다른 한편으로 상하이는 곳곳에서 대대적 도심 재생이 진행되고 있다. 쑤저우 허(蘇州河) 부근의 방직공장 구역의 층간 높이가 높고 개방적인 공간(loft)은 그대로 갤러리와 각종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지구로 탈바꿈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경관은 도심 개발 정책과 자본, 그리고 문화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신흐디(新天地), 텐즈팡(田子坊), 홍팡(紅坊), 모간산루(莫干山路) 등의 경관은 모던하면서 감각적인 소비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본이 문화를 통합하는 기제를 보여준다.

7) 왕샤오밍 저, 김명희 외 번역, 『상하이의 새로운 '삼위일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 왕샤오밍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2015년, 141쪽.

(上海經濟區) 설립을 위해 추진했으나, 행정상의 문제와 조직 능력의 미비로 인하여 1986년 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 후 1992년 푸둥신구 계획(浦東新區總體計劃)을 다시 수립했고, '상하이 경제권'을 중심으로 그 주변 도시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경제적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상하이 푸둥 개발은 주변 도시와 동쪽 연안 지역의 발전 시대를 이끌어어나가고자 하는 국가의 전략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교통이 확충되었고, 금융 중심구, 과학기술 중심구, 현대 제조업과 수출입 공업구, 국제무역과 물류 중심구, 전시 전람 여행구, 소비 문화 관광구 등<sup>8)</sup> 특화 계획 구역이 선정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 지역을 포함하면서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과밀화된 도시의 팽창이 진행되고 있다.

## 2) 〈蝸居〉: 현실 공간 상하이의 일상적 감각과 '집'의 의미

1980년대 말부터 정치·경제의 물질적 조건이 전환됨에 따라 도시의 재정을 충당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토지의 시장화와 주택의 상품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자 정부의 주택 실물 분배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분세제 추진 이후 주택 시장에서 형성된 자본은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을 뿐 아니라, 성장과 발전 중심의 지방 정부가 토지 경영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권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기업가주의적 기구" 성격이 강화되었다.<sup>9)</sup> 특히 중앙 정부에서 지방의 시와 구 단위로 관리와 권한이 이양되면서 상하이 시정부와 구정부는 '도심 재개발 사업'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관료 엘리트와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에 결탁과 공조

8) 국가가 경제 건설과 시장주의의 발전을 위한 대표적 기획으로 상하이의 푸둥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상하이시 정부는 이에 대해 10가지 개발 항목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一軸三帶六區"이다. 홍차오 공항과 푸둥 국제공항에 이르는 상하이 도시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루자주이(陸家嘴) 금융 무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황푸강 일대를 비롯하여 푸둥 국제공항 일대, 장강3교(金橋, 外高橋, 孫橋)일대와 6개의 특성화 구 개발이다. 曾軍, 『90年代以來上海都市空間意識的變遷』, 『중국현대문학』 제39호, 2006년, 435쪽.

9) 한지은, 『도시와 장소기억 - 근대 역사 경관의 노스텔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서울대학교출판사, 2014년, 125쪽.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9년 방영된 드라마 〈蝸居〉에서는 중소도시 출신의 두 자매가 화이트칼러로서 상하이에서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집(房)'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시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의 비밀 공조와 부정축재 등의 행태가 부동산 개발시장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 그리고 개발지역 원주민과의 갈등과 불공정 거래, 폭력의 배후로 드러난다. 드라마는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조망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이 생존을 위한 일상이 되어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구 입은 도시민에게 거주와 일상의 삶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생존의 필수품인 '집'은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폭증하는 아파트 광고에서 볼 수 있듯, 단순한 물적 공간을 넘어 삶의 가치와 생활에 대한 상상이 결부된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주인공 두 자매가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단칸방인 '달팽이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부를 이루거나, 자신이 가진 양심과 돈을 '교환'하는 도전을 감행해야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주인공 하이자오는 언니인 하이핑의 주택 부채 상환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상하이 공무원 관료의 돈과 맞바꾼다. 하이핑은 동생의 행위가 부도덕한 것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삼아 큰 부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결국 정신적 파탄에 이른 동생을 손쉽게 외국으로 보내 버림으로써 성공과 행복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어두운 양심을 외면해버린다. '집'은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이자 소유의 욕망이 투사된 물신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인의 도덕적 자이는 분열과 파탄을 경험한다. 두 자매는 도시인의 분열된 도덕적 자아의 현현(顯現)이며, 그 중심에는 자본에 의한 공간 사유화(私有化), 즉 토지 개발과 부동산 시장이 추동하는 물질적 조건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드라마 이미지를 통해 구성되는 집의 상품화와 주택 시장의 생리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도시인의 영악함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체험되는 도시 감각을 만들어낸다. 이 드라마는 대도시라는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조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감각을 읽어줌으로써 집단이 한 장소를 바라보는 방식인 담론체계를 형성한다.

### 3. 상하이 경관의 비물질적 조건과 역사적 기억의 생산방식

#### 1) 비물질적 조건과 상하이 노스텔지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아래서 현대성의 모순이 내재되어 있던 경관, 중국 사회주의 시기를 맞이하여 홍색서사를 입힌 도시 공간, 개혁개방을 통해 미래 전략을 통한 도시 재건에 다시 소환된 1920,30년대의 노스텔지어풍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국가 경영과 도시 발전 전략에 따라 상하이의 도시 공간은 시대별 다른 경관을 갖게 되었다. 도시 공간의 경관이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암시는 정치적 경제적 체제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문화적 현상이다. 또한 이 문화적 현상은 도시인의 일상생활과 이미지, 감각, 역사와 결부되면서 도시의 기억을 만들어낸다. 앞서 언급한 정치적 경제적 체제 변화가 물질적 조건의 변화라면, 이에 따른 문화적 현상은 비물질적 조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비물질적 조건의 변화는 물질적 감각으로 체감되는 기억을 만들어내며 상하이만의 독특한 도시성을 만들어낸다.

상하이에 발전과 개발 담론이 한창일 즈음 과거 상하이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이 다시 한 번 상기되면서 사회 전반에 ‘상하이 노스텔지어’ 열풍이 일었다. 1920,30년대 올드 상하이에 대한 기억은 1990년대 초반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대상하이(大上海)’, ‘동방의 파리’, ‘마도(摩都)’, ‘지옥 위에 지어진 천당<sup>10)</sup>’, ‘십리양장(十里洋場)’ 등과 같은 상하이에 대한 옛 수사와 담론이 다시 유행했다. 강압적 개항을 통해 열강의 여러 조계를 중심으로 1920,30년대 번영을 구가했던 상하이는 식민주의와 근대성이 점철된 “국중지국

10) 穆時英의 대표작 「上海的狐步舞」(1932)에서 상하이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國中之國)”이었으며 혼란과 치욕의 역사 속에 핀 “자본주의의 기이한 꽃”이었다. 당시 상하이로 찾는 사람들은 신문물에 의한 물질적 기반에 매료되었고 이는 강제적 방식보다 더 깊고 강력하게 일상생활 영역에 침투하면서 도시의 기억과 도시성을 형성했다.

당시 상하이는 ‘동방(중국)에 존재하는 파리(유럽의 도시)’로 비유되었는데, 이러한 수사처럼 에드워드 사이드의 ‘상상된 지리’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상하이는 당시 서양인과 외부인에게 지리적 위치상으로 ‘동방의 도시’ 즉 서구의 타자로 소환되었고, 도시의 특징은 파리로 환유되었다. 파리는 19세기 벤야민과 보들레르의 기록에서 보이듯 근대성과 도시화 및 도시생활을 의미하는 일종의 환유어(metonym)로, 상하이의 도시화와 변영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상하이는 중국 내 어느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에 의한 강제적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향토중국”과는 다른 이질적 타자이나 낙후된 지역에 비해 변영을 구가하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역이었다. ‘동방의 파리’라는 수사는 서양 열강과 피식민 혹은 반식민의 중국, 현대와 낙후, 화계와 조계 등 다양한 관계와 이중적이고도 모순된 위계가 중첩되어 있었다.

일본의 대중작가 무라마츠 쇼후(村松梢風)의 작품 『마도魔都』(1924)에서 비롯된 ‘마도’라는 상하이의 별칭 역시 1990년대 이후 변영하는 국제도시의 면모와 극심한 빈부 격차와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가진 상하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다시 사용되었다. 무라마츠 쇼후가 그의 작품에서 기록하고 있듯,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혼연히 잡거하며, 문명의 화려함과 처참한 하류 생활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천국입과 동시에 지옥과 같은 도시”라 표현<sup>11)</sup>한 것처럼, 뤼빙지(駱兵基)의 1938년 작 『대상하이의 일일(大上海的一日)』에서도 반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운함구에서의 화계와 조계의 선명한 대비와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대상하이”라는 수사는 1927년 국민당이 정권을 전국적으로 확립하고 난 이후 상하이를 특별시로 선포하고,<sup>12)</sup> 조계와 화계의 발전 속도를 좁히고 전반적인 현대

11) 이수열, 「근대 일본작가의 상해체험 - 문화접촉과 탈경계적 상상력」,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호, 2010년, 3쪽.

12) 1927년 7월 7일 장제스는 상하이 특별시 선언회장에서의 발언은 상하이시의 국내외적 입

화 국면을 실현하기 위해 1929년 중국 최초로 총체적이면서 전면적인 도시 계획(大上海計劃)을 발표하면서 사용되었다.<sup>13)</sup> 쑹권(曾軍)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대상하이’라는 말은 날로 국제적 면모로 부상하는 위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규모적 팽창과 발전의 상징으로 다시 소환되었다.

올드 상하이가 식민주의하의 근대성 속에 번영을 구가하였듯이 지금의 상하이 역시 중국내 정치적 전략과 경제 구조의 변화라는 특이한 배경 하에 급속한 규모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상하이 노스텔지어는 물질적 감각으로 각인되었던 식민성, 제국주의, 자본주의 등 상하이가 갖고 있는 온갖 모순의 현대성의 감각 그 자체이며, 1990년대 이후 온갖 상품 브랜드로 물화된 글로벌 자본주의와 국제 자본이 점령하는 거리에 다시 소환된 옛 상하이의 도시감각이다. 지금도 상하이 도시 확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물질적 번영과 끝없이 몰려드는 다국적 문화로 인해 도시 경관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공간과 소멸하는 공간이 교차하고 새 것이 옛 것을 대체하게 되었을 때, 존재하고 있지만 곧 존재하지 않는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마도 옛 상하이와 현재의 상하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도시감각일 것이다. 쇠퇴한 예술 작품에서만 그 아우라를 인식할 수 있듯,<sup>14)</sup> 올드 상하이에 대한 기억과 소비는 이미 현재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도시가 갖고 있었던 유일무이한 ‘아우라’에 대한 갈망과 상상이자, 상하이가 가진 물질적 감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

지와 위상에 대해 엿볼 수 있다. “상하이시의 위치는 다른 보통의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동아시아 제일의 특별한 도시이며, 군사·경제·교통 등 각종 문제를 불문하고 상하이는 다른 도시의 모범과 기준이 되어야 하며...중외에 외관으로도 중요하므로 도시를 완벽하게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하 생략).” 발언문은 俞世恩, 「1929年“大上海計劃”的特點及其失敗原因初探」, 『歷史教學問題』, 2014年第3期에서 “國民政府代表蔣總司令訓詞”(《申報》1927年7月8日)의 내용 발췌를 재인용.

13) 俞世恩, 「1929年“大上海計劃”的特點及其失敗原因初探」, 『歷史教學問題』, 2014年第3期, 117쪽.

14)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서울: b, 2017.

## 2) 〈僞裝者〉: 항일역사의 중심지로 소환된 부르주아의 도시

이미지의 주요 목적은 그것이 의도한 바를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 공간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장소와 시간을 엮는 과정이자 역사적 기억마저도 재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 중의 하나이다. 도시공간에 정치적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써 이데올로기를 현전하는 것은 중국 건국 이후 상하이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그 예로, 20세기 초까지 '동양의 파리'라 불렸던 근대 도시 상하이는 사회주의 체제 성립 이후 다양한 이미지를 동원하여 제국주의와 중국인 착취의 공간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성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와이탄(外灘)과 난징루(南京路) 등 상하이의 상징 공간은 문혁이라는 격동의 정치적 시기를 거치며 외국어 간판을 일소하고 '홍해양(紅海洋)'과 같은 강렬한 붉은 색채와 마오쩌둥 어록과 이미지를 채워 넣음으로써 사회주의적 경관으로 이용되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해로움으로 점철되었던 상하이의 도시 공간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공간은 도시민의 경험과 기억을 각색한다.

상하이는 시장체제의 효용과 발전 담론의 성공적 성과를 보여주는 도시로 거듭나면서 다시 새로운 경관을 형성하였다. 그 가운데 상하이 노스텔지어 풍은 시장 체제 하의 소비적 실천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상하이 노스텔지어 풍의 도시 이미지는 당대 주류 이데올로기가 의도한 대로 대도시적 면모, 부유와 풍요, 현대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등의 미학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 현대적 도시가 가지는 아우라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역사적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 〈위장자(僞裝者)〉(2015)의 시대적 배경 설정을 들 수 있다. 주선울 드라마의 배경으로 대개 내륙의 항전과 혁명의 역사를 가진 도시를 설정하는 데 반해, 이례적으로 항일전쟁과 혁명의 주요 무대로 1930년대의 상하이를 설정하고 있다. 카페, 호텔, 백화점, 무도회장, 네온사인의 거리는 서구 부르주아 문명의 상하이를 배경으로 드라마 주인공은 모두 당시 민족자산가 계급에 해당하는 상류사회의 인사들

이다. 주인공 부르주아 청년은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산당의 비밀 요원으로 활약함으로써 항일 구국활동에 핵심적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고, ‘고도(孤島)’ 혹은 조계였던 공간은 항일운동이 활발했던 근거지로 복원되었다. 1930년대 상하이는 자본주의의 병폐로 물든 곳이 아니라 지하 공산당원들의 주요 활동 무대로서 항일구국의 활약과 사회주의 혁명을 배태한 역사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 드라마는 화려한 자본주의 도시 상하이의 특정 시기와 공간에 대한 기억을 사회주의 혁명의 공간으로 상징적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이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건국시기 홍색서사와 그 이미지로 점철되어 잊혀졌던 조계 시절 상하이의 모습은 다시 노스텔지어로 소환되면서 드라마를 통해 과거 기억을 재구성해낸다. 사회주의 시기에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기억의 탈각<sup>15)</sup>을 겪었고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인 전망과 연결된 상하이 노스텔지어는 다시 항일 전쟁의 역사 속에 다시 합류하게 되며 항일투쟁의 새로운 신화를 간직한 도시 경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920,30년대의 상하이 시대풍은 ‘시장경제 번영의 원류’ 혹은 ‘문명도시의 원형’ 등의 수사로 도시 문화 캠페인과 공익광고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상하이의 도시 경관과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 가운데 현대 도시문명과 경제 발전이라는 주류 이데올로기 담론을 뒷받침하는 이미지 수사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진핑 1인 체제의 공고화에 따른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는 경제·문화 발전을 담론을 정치적 담론으로 수렴하고자 하며, 이는 대중문화 영역에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애국주의의 강화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 ‘번영의 원류’이자 ‘문명도시 원형’의 이미지를 가진 상하이 노스텔지어풍은 주류 이데올로기 강화에 강렬한 역사적 기억의 서사를 동반하며 대중문화 영역에 다시 등장했다.

상하이 노스텔지어는 권력, 정책, 역사와 기억, 인문학적 전통·지식, 상하이의 지리적·경제적 위치와 짜임들이 상하이라는 도시성으로 응축되도록 하는 특정한 방식이자 새로운 기억의 생산 방식이다. 드라마 〈위장자〉에서 항일 역사의 중심지

15) 박자영, 「상하이 노스텔지어 - 중국 대도시 문화현상 사례와 관련 담론 분석」, 『현대중국문학』 30, 2004년, 99쪽.

로 다시 소환된 올드 상하이의 이미지와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상상적 재현은 정치·경제적 권력 관계가 뒤얽혀 있는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경관임을 보여준다.<sup>16)</sup>

#### 4. 통치성과 도시성의 형성

##### 1) 보여주기와 감추기: 포스트 계급사회의 중산계층과 ‘신빈민(新窮人)’

드라마 〈환락송(歡樂頌)〉(2016)은 중산계층을 도시의 대표적 중심 계층으로서 상징하고 있으며, 계층 간의 화합과 화해라는 중심 줄거리를 통해 중간계층을 사회 통합적 이미지로 구축하고 있다. 상하이 쑤저우허 부근의 아파트 ‘환락송’의 같은 층에 모여 사는 다섯 명의 주인공은 각각 중산계층(중상, 중중, 중하)<sup>17)</sup>을 대표한다. 2201호에 거주하는 상하이의 대부호의 딸 취샤오샤오는 소비와 취향 등에 있어 ‘상하이인’<sup>18)</sup>을 표상하며 중산계층 가운데서도 상층에 해당한다. 2202호에 거주하는 앤디는 미국에서 공부한 투자회사의 최고 재무책임자로 중산계층 가운데서도 중층에 해당한다. 2203호에 거주하는 판성메이, 쉐잉잉, 관취얼은 각각 농촌과 소도시에서 유입된 화이트칼러 내지는 임금 노동자로 중산계층 가운데서 중하층에 해당한다.

16)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프리트 엮음, 최병두 역, 『에드워드 사이드의 상상적 지리』, 『공간적 사유』, 서울: 예코리브르, 2013년, 558쪽.

17) 리춘링의 10대 계층은 노동, 권위등급, 생산관계, 제도적 위치, 점유하고 있는 자원이라는 다섯 분류 지표로 나누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계층 분류는 리춘링의 10대 계층 분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李春玲, 『斷裂與碎片: 當代中國社會階層分化實證分析』,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年, 112쪽.

18) 〈환락송〉의 주인공은 상하이에서 살아가는 상하이의 ‘도시인’이다. 다섯 주인공 가운데 상하이 토박이 출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소 주변도시에서 온 외지인이다. 상하이는 외지인의 비율이 현지인의 비율을 초과하는데,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장기간 안정적 생활 기반을 통해 상하이 호적(戶籍)을 얻었다 하더라도 “상하이인(上海人)”과 구별되는 “신상하이인(新上海人)”이다. 상하이인과 신상하이인 사이에는 현지-타지의 구별 속에 잠재하는 사회문화적/계층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

드라마는 상하이의 장소 재현을 통해 도시의 가시적 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제적이지만, 서로 다른 계층이 한 장소에서 갈등을 겪으며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적이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그 본질을 결정하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풍부하고 자율적인 생활세계를 소비의 층위, 욕망의 실현 등으로 왜곡하고 축소시키며, 정치·경제적 층위가 가지는 관계를 고의적으로 보여주지 않거나 은닉한다. 〈환락송〉에서는 계층 간의 화합은 있으나 계급투쟁은 없으며, 분투와 노력의 대가로 도시의 삶을 보여주나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보여주지 않는다. 도시를 대표하는 계층인 중산계층의 생활방식과 삶을 그리고 있지만,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 대부분이 신노동자라고 불리는 도시의 저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포스트 계급사회’로 전환된 이후 계급 담론 보다는 계층 담론을, 모순과 갈등의 국면보다는 조정과 화합의 봉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도시와 사회에 대한 상상을 제공한다.

중국은 건국 초기 주권적 위치에 노동자와 농민을 배치하였지만, 이후 당대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조직하는 과정에서 계급 정치 담론은 더 이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포스트 계급사회(後階級社會)’라는 용어가 19·20세기 동안 활발했던 계급투쟁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 짓기 위해 등장하게 되었다.<sup>19)</sup> 노동 가치 중심 사회에서 자본 가치 중심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계급 정치 담론은 투쟁과 폭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서<sup>20)</sup> 점차 사회분화에 대한 계층 담론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계급 사회의 계급분화와 계급 현상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 분화에 따른 계급 정치의 약화라고 봐야할 것이다. 중국의 한 분석 결과 중국인들은 사회 분화에 대해 단일한 양극 분화의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 수입과 권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이 사회적 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이에 따라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갈등과 모순이 심화되는 한편, 샤오캉 사

19) 汪暉, 「兩種新窮人及其未來——階級政治的衰落、再形成與新窮人的尊嚴政治」, 『開放時代』, 2014年 6月, 50쪽.

20) 李友梅·孫立平, 『當代中國社會分層: 理論與實證』, 社會科學院出版社, 2006年, 103쪽.

회에 대한 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주의는 중산계층의 확대와 중산사회에 대한 상상을 제공하게 되었다.

당대 사회에서 중산계층은 양극화된 인구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사회 질서와 체제 유지를 위한 완충지대를 담당한다. 또한 소비사회에서 중산계층은 자본과 상품에 대한 소비의 자유를 가지며, 사회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는 한에서 비판의 자유를 가진다. 중국에서 중산계층은 지배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체제의 합법성을 증명해주는 거대한 “만족스러운 전체”로 기획되었다.<sup>22)</sup> 이러한 정책적 경향성은 미디어 이미지를 통해서도 양극이 좁고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구조에 대한 상상을 제공한다.

중국 도시의 중산계층의 운명과 노동은 이른 바 사회주의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도적 역할을 하며 “불안정한 소비의 집단” 혹은 개인의 권리와 정치 변혁에 민감성을 갖고 있으나 자본주의적 정동에 의해 철저히 휘둘린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했다.<sup>23)</sup> 그래서 소비사회에서 이들은 소비 결핍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부자를 보편적으로 선망하는 상대적 빈곤자인 뉴푸어(the new poor), 즉 신빈민(新窮人)이다. 이들은 생활 문화적인 것을 결정하는 물질적·정신적 요소를 자본가 계급의 그것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단절된 도시의 신노동자(新工人)와 경제 체제의 기본 가치관에서도 근본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빈민과 신노동자는 계급의식을 공유하지 않을 뿐더러 각각 다른 세상에서 표류한다. 이 드라마에서 신노동자의 생활과 모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서로 다른 계급의 단결이 20세기 보편적 사회동원 방식이었지만, 21세기의 중국에서는 이 두 층위의 사람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 신빈민

21) 李友梅·孫立平, 『當代中國社會分層：理論與實證』, 社會科學院出版社, 2006年, 93쪽.

22) 2002년 11월 11일, 공산당 제 16차 대표대회에서 당시 총서기 장쩌민이 ‘중간소득 집단의 배율을 확대’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또한 2011년부터 추진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는 중산계급 육성을 위한 “提低, 擴中, 調高” 정책이 포함되었다. 중국사회는 개발과 발전 담론의 강화에 따른 사회양극화와 모순갈등의 완화를 위해 중산계급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김옥, 『중산사회: 중국의 계층분화와 중산계급의 형성』, 서울: 역락, 2015년, 21, 26쪽.

23)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새로운 빈곤』, 서울: 천지인, 2012년, 45쪽.

의 생활은 소비에 대한 갈망과 자본주의적 정동에 기반하고, 신노동자는 노동법과 사회 보장 등 권익 보호 의식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급의식이 성장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계급의식은 소비주의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수많은 신노동자의 꿈과 정치적 추구는 결국 도시의 신민민의 꿈에 수렴되며, 신민민은 중간층 담론과 상상 속에 안주한다. 도시 공간에 대한 이미지 재현은 도시의 꿈과 현대적 생활방식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산사회에 대한 상상을 제공하며 이는 결국 이는 체제의 합법성과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

## 2) 〈歡樂頌〉: 도시의 환락과 욕망의 통치성

도시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도시에서 존재하는 다양하고 불균등한 계급이 만들어내는 모순과 사회 문제 자체를 도시성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생활의 기반과 사고방식이 '도시'라는 공간 형식을 통해 현현(顯現)된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르페브르는 도시성을 밀집된 인구와 건축 환경의 확장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자체의 도시적 전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24)</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도시 공간 자체가 생활양식을 결정지어버릴 수 있다는 결정론적 입장에 한정되기 쉽다. 오히려 카스텔(Castells)의 생각처럼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심 공간이지만, 하나의 전형성으로 혹은 그 자체만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경제, 정치, 사회, 역사,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로 파악해야 한다.<sup>25)</sup> 그렇기 때문에 도시성은 당대 사회의 지배적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환경에 특화된 도시라는 공간 위에 투사된 당대 사회의 문화생산 기제로 파악해야 한다.

〈환락송〉에서 읽어낼 수 있는 도시성, 즉 당대 중국 사회의 문화 생산 기제는

24) 서영표,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 '도시에 대한 권리'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2012, 71쪽, 재인용.

25) 같은 자료, 71쪽, 재인용.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적 욕망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자, 그 행동의 목적(telos)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른바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26)</sup> 이것은 직접 지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개인의 행동과 욕망에 관해 긍정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통치자의 '통치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드라마 속 다섯 명의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통치의 테크놀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도시에서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가치 실현의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의 욕망과 텔로스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은 스스로의 가치 실현과 그에 대한 증명으로 구성된다.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환락은 물질적 기초에 기반한다. 성공과 안정의 물질 토대는 바로 '도시'에 있다. 이러한 물질 기반은 소비 행위에 집중되는데 소비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위상, 인간관계, 행복과 만족이라는 삶의 성취도를 결정짓는다.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소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 안에서 단련되고 성장해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제아무리 '푸얼다이(富二代)'라 할지라도 기업가로서 홀로서기 해야만 하는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하며, 유능한 해외 유학파라 할지라도 회사를 위해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스스로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지방 소도시에서 올라온 여성들은 상하이에서 안정된 직장과 가정, 집과 자동차로 대표되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 대기업 인턴 생활은 각종 지표와 수치로 점수 매겨지며 치열한 경쟁 속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소모적 노동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직장생활은 고되고 험난한 노동과 인간관계 속의 연속이며, 회사가 거부하면 언제든 퇴출을 각오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태되지 않게, 생존을 위하여 이들은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경영하는 '경영자'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그 가치로써 자신을 존재를 증명하

26) '통치성'은 푸코의 개념으로 개인의 욕망과 그에 대한 행위들을 지배적 권위 하에 배치시킴으로써 개인의 삶을 통솔하고 지도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이다.

미셸 푸코, 오르트랑 율김(심세광 외),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 서울: 도서출판 난장, 2011, 147-151쪽.

27) 위와 같은 자료, 117쪽.

고자 한다. 이는 과도하게 범람하고 있는 경영 담론을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소비하는 현상으로, 도시에서의 생활양식을 재현하는 모든 실천과 관계의 구성이 경제적 담론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상하이라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성(城) 안에서 발생하는 도시의 각종 모순은 물질세계의 욕망 속으로 투신하는 청년들의 수많은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과 한숨을 먹고 자란다. 생존을 위한 삶,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 성공을 위한 도전과 실패... 도시에서의 삶은 사랑마저도 부와 행복을 위한 전략 안에 배치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일상을 압도하고 있는 통치성의 테크놀로지, 즉 무한한 경쟁과 경영의 자유주의적 합리성이 사회·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가치 관념을 새롭게 조직하고 편성하고 있다.<sup>28)</sup>

## 5. 나가며

상하이는 근대 이후 서양의 침입이 가져온 자본주의 양식과 중국 전통의 양식이 공존하는 곳이었으며 사회주의 중국이 성립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된 장소와 기억들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제거 혹은 확대 되거나 미디어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 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다.

미디어의 이데올로기는 이미지를 통해 인지적 공간을 생산하고 끊임없이 그 공간을 재구성한다. 이미지는 물리적 공간의 단순한 반영(反影)이나 기록이 아닌 기호와 상징체계로 이루어지는 독해 가능한 텍스트이며, 이미지가 구성해내는 인지적 공간 역시 기호화된 사건과 행위의 새김이기 때문에 세계를 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읽어낼 수 있다. 이미지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구성해내는 인지적 공간 역시 다분히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28) 서동진, 「혁신, 자율, 민주화...그리고 경영 - 신자유주의 비판 기획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분석」, 『경제와 사회』, 2011, 83-84쪽. 서동진은 이러한 경영담론의 지배를 나이절 스텔리의 용어를 빌어 새로운 '자본의 문화적 회로(cultural circuit of capital)'의 압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드라마 미디어/이미지는 정부의 미래 전망, 공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며, 이렇게 생산된 인지적 공간으로서 상상된 도시(imagined city)는 도시 정책과 구조 변화에 동반되는 모순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존하는 중국적 경제 질서에 중국인의 일상이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작동한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도시 경관이란 재현된 주류 이데올로기이며, 이미지의 정치적 작용이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재현체계이자 재구성된 인지적 공간을 의미한다.

도시라는 실제 공간은 일상생활세계를 둘러싼 도시에 대한 담론의 공간, 미디어를 통한 물질적 재현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이라는 도시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층위의 공간을 재현해낸다. 시민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국제 대도시로서 가지는 변화함과 경제의 중심지라는 상상적 체험의 공간, 그리고 역사와 기억이 재구성되는 정치적 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도시는 역사와 일상적 경험이 녹아든 총체이며 거대한 기억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베를린 연대기』에서 벤야민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 당시의 근대적 삶과 일상의 도시 경관을 재현해낸 것처럼, 과거의 도시 경관과 생활양식 그리고 기억은 현재에도 지속되는 경험, 감각, 이미지에 의해 순간순간 드러난다. 도시는 “신화의 장소”이며<sup>30)</sup>, 도시의 기억과 가치는 오래된 건축물과 도시계획 담론, 국제도시의 초현대적 면모 위에 끊임없이 새로운 신화와 가치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개입하고 있으며 과거의 기억과 이미지는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소환되며 재구성되고, 미디어를 통해 여러 층위에서 상상적으로 재현된다.

#### 〈參考文獻〉

- 李友梅·孫立平, 『當代中國社會分層：理論與實證』, 社會科學院出版社, 2006年.  
李春玲, 『斷裂與碎片：當代中國社會階層分化實證分析』,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年.

29) 김왕매,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2011년, 53쪽.

30) 같은 자료, 53쪽.

- 汪暉, 「兩種新窮人及其未來——階級政治的衰落、再形成與新窮人的尊嚴政治」, 『開放時代』, 2014年 6月.
- 俞世恩, 「1929年“大上海計劃”的特點及其失敗原因初探」, 『歷史教學問題』, 2014年第3期.
- 曾軍, 「90年代以來上海都市空間意識的變遷」, 『중국현대문학』 제39호, 2006년.
- 김옥, 『중산사회: 중국의 계층분화와 중산계급의 형성』, 서울: 역락, 2015년.
-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2011년.
- 마이크랭 · 나이절 스텍트 엮음, 최병두 옮김, 『공간적 사유』, 서울: 에코리브르, 2013년.
- 미셸 푸코, 오르트망 옮김(심세광 외), 『안전, 영토, 인구-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 서울: 도서출판 난장, 2011년.
- 슈테판 권첸 엮음, 이기홍 옮김, 『토폴로지』, 서울: 에코리브르, 2016년.
- 외르크 뒤링, 트리스탄 틸만, 『공간적 전회』, 서울: 심산, 2015년.
- 왕샤오밍 저, 김명희 외 번역,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 왕샤오밍 문화연구』, 문화과 학사, 2015년.
- 원테켄 지음,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돌베개, 2015년.
- 원테켄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덟 번의 위기-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1949~2009』, 돌베개, 2016년.
- 이수열, 「근대 일본작가의 상해체험 - 문화접촉과 탈경계적 상상력」,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호, 2010년.
- 박자영, 「상하이 노스텔지어 - 중국 대도시문화현상 사례와 관련 담론 분석」, 『현대중국문학』 제30호, 2004년.
-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서울: b, 2017.
- 서동진, 「혁신, 자율, 민주화...그리고 경영 - 신자유주의 비판 기획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분석」, 『경제와사회』, 2011년.
- 서영표,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 ‘도시에 대한 권리’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2012년.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새로운 빈곤』, 서울: 천지인, 2012년.
- 한지은, 『도시와 장소 기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년.

[참고 드라마]

- 〈蝸居〉: 2007년 출판된 六六의 동명소설 원작. 35集, 2009년.
- 〈偽裝者〉: 山東影視傳媒集團有限公司, 東陽正午陽光影視有限公司出品, 48集, 2015년.
- 〈歡樂頌〉: 東陽正午陽光影視有限公司, 山東影視制作有限公司出品, 42集, 2016년.

〈Abstract〉

Reconstruction of Urban Space and Memories, and Politics of Images in Shanghai: Focused on the Contemporary TV Dramas *Dwelling Narrowness*, *The Disguiser*, *Ode To Joy*

Ko, Yoon-Sil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ultural system which entirely organizes Chinese life worlds and changes of the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by analyzing the main ideologies appearing through the design of urban structures and spaces and the action of images as practical discourses for it. It recognizes the 'culture' for problems in the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as a meaning system, reflects the Raymond Williams' cultural research perspective arguing that multilateral reading is possible and begins with active interest in problems and phenomena in the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attempts to enhance the potential of new humanities through the negotiation and dialogue with literature and sociology, and it also extends the width of studies and seeks for qualitative improvem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chanism of cultural production in the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It intends to analyze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organizing the urban landscape in Shanghai and consider the political action of images as practical discourses. Here, the urban landscape is the representation of main ideologies and the political action of images involves all of visual practice and contents, for propagation and reinforcement of policies based on main ideologies: all kinds of posters, slogans and cultural events. They reorganize the memory of a specific period and space in Shanghai, a capitalist city into symbolic images in the space of socialist revolution and continuously reinforce it. This study considers the mechanism in which politics integrates culture via capital, by examining such reorganization and reinforcement. In addition, it attempts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mechanism of cultural production, by deeply considering Chinese lifestyles and changes in their psychological structures, in terms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Key words: urban space, ideologies, images, TV Dramas, Shanghai

이 논문은 2019년 7월 22일에 접수되어 2019년 8월 13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8월 2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